

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
제259회 제2차 정례회

검 토 보 고 서

2022. 12. 9.(금)

순서	검 토 안 건	제 안
1	서울특별시 마포구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	홍지광 의원 외 10명



행정건설위원회

(전문위원 유준상)

“서울특별시 마포구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”

검 토 보 고

(보고자 : 전문위원 유준상)

1. 제안경위

- 제안자 : 홍지광 의원 외 10명
- 제안일 : 2022. 11. 22.
- 회부일 : 2022. 11. 25. (의안번호 : 22-127)

2. 제안이유

- 마포구 구정 홍보 및 행사 등에 소셜미디어를 활용하는 경우 참여자에게 게시물 제작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여 이 전보다 지원의 폭을 넓히고, “마포구 소셜미디어 서포터스”를 운영하여 구정에 대한 구민의 관심과 참여를 확대하고자 하고자 하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- 소셜미디어 활용사업 예산지원 범위 정비(안 제5조)
- 소셜미디어 서포터스의 운영 사항 신설(안 제6조)

4. 관계법령

- 「지방자치법」 제28조

5. 절차이행

- 본 조례안은 「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」 규정에 따라 11월 18일부터 11월 23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나 별다른 의견은 없었으며 부서 협의기간을 두어 의견을 수렴하는 등 조례 제정을 위한 절차를 완료함.

6. 검토보고

- 본 조례안은 홍지광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, 10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이며, 마포구 구정 홍보 및 행사 등에 소셜미디어를 활용하는 경우 참여자에게 게시물 제작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여 이전보다 지원의 폭을 넓히고, “마포구 소셜미디어 서포터스”를 운영하여 구정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임.
- 주요내용으로는 (안 제5조)에 소셜미디어 활용사업 예산지원 범위 정비함.
- (안 제6조)에 소셜미디어 서포터스의 운영 사항 신설함.

○ 검토의견으로는

현재 마포구 소셜미디어 운영 채널은 ① 페이스 북 ② 블로그 ③ 인스타그램 ④ 카카오톡 ⑤ 트위터 ⑥ 카카오톡 채널 총 6개 운영 중으로 SNS의 채널 특성을 고려하여 양방향 소통체계를 확립하여 소통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사업의 방향을 개선,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

○ 구청과 구민 간의 양방향 소통을 위한 방안으로 ‘마포구 SNS 서포터스’ 를 운영하여 구민의 구정에 대한 관심도 제고뿐 아니라,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, SNS 서포터스 운영에 필요한 예산범위를 확대하여 지원함으로써 원활하게 사업을 운영을 하고 신규 참여 활성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됨.

○ 다만, 현재 참여하고 있는 연령층이 고령층에 한정된 점을 보완하고, 다양한 연령과 세대가 구정에 관심을 갖도록 유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.

○ 또한, 본 조례안은 「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」 규정에 따라 11월 18일부터 11월 23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나 별다른 의견은 없었으며 부서 협의기간을 두어 의견을 수렴하는 등 조례 제정을 위한 절차를 완료한 본 조례안은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